

2025년 1월1일 부산일보 신문 기사 지면

202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제 24418 호 21

2025 신춘문예

시조


어느 모텔 수건의 공식

김동균

나란한 공식으로 허얇게 각 집힌 날
 씻어낸 자리마다 낮가림이 따로 없어
 한 번만 쓰고 버려도 표정 없는 얼굴이다

두꺼운 거든 사이 햇살을 막아두고
 계절을 빨아 놓아 들고 오는 순백의 시간
 아무리 흡어놓아도 반듯하게 접혀있다


재겨진 문신처럼 씻어도 그대로
 눈총으로 찌힌 나인 구석으로 밀려날 때
 객실 벽 초침 소리는 꽃무늬에 스며든다



삽화-류지혜 기자

아프고 얼룩진 부분 잘 닦아낼 것

시조 당선 소감



김동균

이런 겨울은 첫눈이 유난히 많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고도 남았습니다. 얼룩지고 때 묻은 생각들까지 감쪽같이 사라지는 순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 겨울 햇살이 그늘을 파고듭니다. 흡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학이 제 안에서 쌓였다 녹는 사이 각 잡힌 마음들이 자주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놓인 하얀 수건을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닦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수건처럼 시조는 때때로 주변을 자세하게 살피게 했습니다. 시조 짓기가 아니었다면 내 삶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유로움이 좋아 가끔은 내 안을 누비기도 했지만 아주 우연히 시절가조의 정형시에 빠져 지금은 그 곁을 따라가며 맑은 사유를 느끼곤 합니다. 사물과 대화하는 시간이 친구처럼 즐겁습니다. 삶의 공식 앞에서 풀어나지 못한 많은 시간들을 시조의 형식에 가지런히 담아 아프고 얼룩진 부분까지 잘 닦아내겠습니다.

문학의 언저리를 서성일 때 시조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조정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드리며, 군포에서 활동할 때 문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군포 문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며 내 편이 되어준 아내 박인숙, 무조권 아빠를 믿고 지지해 준 민지, 재훈 고맙고 사랑합니다.

약력 : 1973년 강원도 영월 출생, 2024년 중앙시조 백일장 11월 장원, 시란 동인.

인간 숙명 기초해 튼튼하고 아름다워

시조 심사평



정희경

응모작들을 '신춘'과 '시조'에 방점을 두어 읽었다. 문학이 가진 보편성에 '신춘'을 더한다는 것은 시각은 현실에 두되 미래를 꿈꾸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미보다는 완성으로 가는 지열한 과정을 더 눈여겨보았다. 독립 장르로서의 시조가 가진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주목했다. 정형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함축성과 절제미를 시조라는 형식에 잘 녹여내는가, 형식이 내용을 가두는 틀이 되지 않는가 등에 집중해서 읽었다.

'진공배다', '일요일은 추가 버린', '커터 날의 13월'은 시대의 아픔을 농도 있게 노래했지만 각각 함께 응모한 작품들의 수준, 세밀한 표현, 장의 긴장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끝내 내려놓았다. '빨간 불빛 이후', '어느 모텔 수건의 공식' 두 편을 두고 많은 시간 고민하며 반복해서 읽었다. 두 편 모두 사물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도전적이고 언어를 부리는 솜씨도 탁월했다. 다만 '빨간 불빛 이후'는 조사나 어미 등으로 장을 연결함으로써 시조가 가진 응축성이 다소 부족했다.

당선작 '어느 모텔 수건의 공식'은 발상이 신선하고 세 수를 끌고 가는 응집력이 돋보였다. 어지러운 세상, 이질적인 세상, 혹은 무관심의 세상을 살아갈 소시민의 자세 혹은 공식을 모텔의 수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수건'의 의미를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작품으로 시대상과 인간의 숙명을 기초로 하여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고 있는 집 한 채를 보는 느낌이었다. 부디 시조의 생명을 여는 주역으로 치열하게 시조에 창작하길 기대한다.

심사위원 정희경 시조시인

부산일보 기사 웹주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3117162599477>

부산일보 기사 웹주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3117162599477>

BUSAN.com 부산일보

[2025 신춘문예] 고통 속에서 핀 꽃 “문학은 나의 운명”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 영광의 얼굴들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

입력: 2024-12-31 17:48:44



2025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얼굴에서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났다. 왼쪽부터 희곡 유주호, 단편소설 조재운, 시 이희수, 평론 이채원, 동시 황세아, 시조 김동균 씨. 김종진 기자 kjj1761@

시 조 당선자 김 동 균

음대 나온 플루트 연주가 출신 시인 ‘자유로움 속에 있는 구속’ 시조에 빠져

시조 당선자 김동균(51·강원도 영월군 쌍용로) 씨는 당선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섭섭하게도 신중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의심했다. 김 씨는 음대를 나와 플루트를 연주하며 살던 음악가에서 시조시인으로 변신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인다. 경기도 군포의 음악협회에서 사무국장을 했는데 뒤풀이에서 문인협회와 어울리다 그만 문학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것도 서양 음악을 했으니까 한국적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2019년부터 시조의 매력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생각하는 시조의 매력은 ‘자유로움 속에 있는 구속’이다. 소재 면에서 파격적인 ‘어느 모텔 수건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했다. 이 작품은 지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리조트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착상이 떠올랐다고 했다. ‘휴지통’이나 ‘화살표’ 같은 그의 작품을 보면 시조의 소재를 어디서 찾는지 짐작이 된다. 김 씨는 강원도에서 부인과 함께 편의점을 봐주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 관련한 시조가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